

07.18.2010 (주일)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마 5:6)

어느 누가 말하기를 인생은 은행 같다고 했습니다. 통장에 있지 않은 것을 찾을 수 없듯이 인생에는 정성을 들인만큼 수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고의 댓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면서도 만족스러운 일입니다. 기근이 든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배부르게 되면 매우 만족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신 땅은 기근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창 12:10). 이삭이 머문 땅에도 기근이 있었습니다 (창 26:1-6). 야곱의 땅에도 기근이 있었습니다 (창 42:1-5). 아니 믿는 자에게 왜 기근이 있습니까? 하지만 보이는 기근을 통해서 신령한 기근을 가지게 됐던 것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르게 하는 신령한 기근 말입니다. 보이는 궁핍함이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더욱 신뢰하게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신령한 기근으로 세상 기근을 이기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모든 기근을 이겨냈습니다. 롯이 머문 땅에도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친정집으로 가지 않고 신앙의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유다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믿음으로 보아스를 만나 오벧을 낳고 오벧은 이새를, 이새는 다윗을 낳았던 것입니다. 만일 롯이 하나님의 축복에 주리고 목마르지 않았다면 보아스를 만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삭이 메시아의 오시는 길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이 없었다면 흉년을 만났을 때 애굽에 내려갔을 것입니다. 야곱이 장차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었다면 결코 뼈가 부러지면서까지 천사와 씨름하면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호 12:3-4, 창 32:24-28). 하지만 이들은 하나같이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세상 것에 굶주린 자가 아니라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입니다. 의는 복음에서 나옵니다. 롬 1:17 볼 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고 또 갈 2:16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줄 아는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라고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의입니다! 복음을 내세우는 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빌 1:27)! 고라 자손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시 42:1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라고 신앙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주리고 목마른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신령한 기근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배고픔, 말씀에 대한 갈증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 88:1-2에 나오는 고라 자손의 마음을 보세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로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며 주의 귀를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의의 주리고 목마른 자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해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신 4:7, 시 107:19-20).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말씀만을 믿고 나갈 때는 ‘여러가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배부르게 해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 저것 여러가지를 고려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은 임하지 않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라고 마 5:6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배부른다는 헬라어는 콜타조(chortazo - to feed, fill, satisfy)로 먹이다, 채우다, 만족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쓴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말씀만을 믿으세요 (빌 4:19)! 사도바울은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헐벗고 매맞고 온갖 상상을 뛰어넘는 위험에 처했습니다 (고후 11:23-27).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자기를 믿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고후 1:9). 그 결과 선한 싸움을 하면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딤후 4:7).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은 자가 되어 합시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
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것보다 많도다” 계 2:19의 말씀처럼 복음사업을 위해서 수고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사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계 7:16)!

사랑하는 여러분, 만족케 하는 말씀, 채워주시는 말씀, 약속을 성취하시는 말씀이 해결해 주십니다. 말씀
이 승리케 해주십니다. 즐거운 소리로 채워주시는 말씀 (욘 8:21),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말씀입니다
(욘 22:18). 동서남북으로 기쁜 소식이 그리고 좋은 것으로 차고 넘치도록 채워지는 은혜가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